

보도 일시	2025. 10. 22.(수) 12:00 <10. 23.(목) 조간>	배포일	2025. 10. 21.(화)
담당 부서	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	담당자	김소영 팀 장(043-880-5421) 고나현 조사관(043-880-5424)

[소비자안전주의보]

실내 인공 암벽 등반 추락 사고 다발... 안전수칙 준수해야

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(스포츠클라이밍)은 벽면에 설치된 인공 암벽을 맨몸으로 오르는 스포츠로,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추락 등 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.

최근 5년간(2020~2024년)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으로, 2023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은 실내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.

※ 연도별 접수 건수: ('20년) 13건 → ('21년) 11건 → ('22년) 19건 → ('23년) 35건 → ('24년) 124건
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: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·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□ 10건 중 8건이 '추락' 사고, 착지 미숙 주의 필요

연령이 확인된 안전사고 183건을 분석한 결과, '20대'가 50.8%(93건)로 가장 많았고, '30대' 18.6%(34건), '10세 미만' 15.3%(28건)* 등의 순이었다.

*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클라이밍 체험 공간 증가 영향

사고 원인은 '추락'이 대부분(83.7%, 169건)이었으며, 안전하지 않은 하강 방법과 부적절한 착지자세로 인한 부상이 많았다.

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은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'볼더링'*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.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, 바닥 매트에 의지해 방심하기 쉽고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되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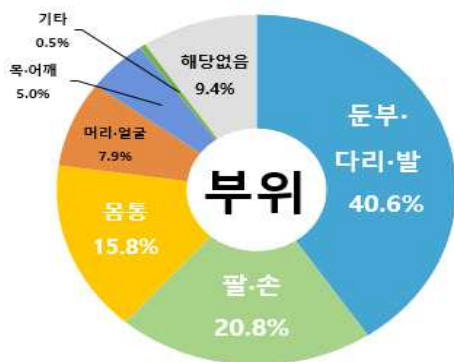
* 볼더링(Bouldering):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으로 4~5m 높이의 인공 암벽을 로프 없이 등반하며 바닥에 매트를 설치함.

□ 잘못된 착지, 골절과 탈구 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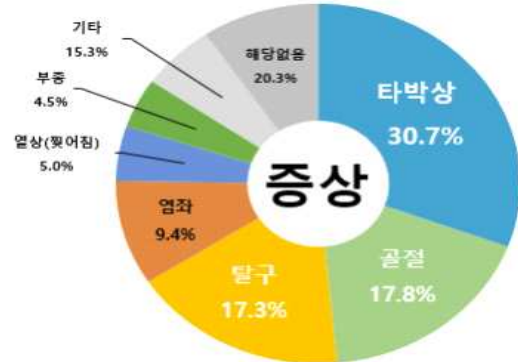
주요 위해부위를 분석한 결과, ‘둔부·다리·발’(40.6%, 82건)이 가장 많았고, ‘팔·손’(20.8%, 42건)이 그 뒤를 이었다. 이는 착지 과정에서 발목 등이 손상되거나, 반사적으로 손을 짚으며 손목,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

증상별로는 ‘타박상’이 30.7%(62건)로 가장 많았지만, ‘골절’(17.8%, 36건)이나 ‘탈구’(17.3%, 35건) 등 중상을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<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 위해부위>



<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 위해증상>



□ 즐거운 취미 생활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가 우선

실내 인공 암벽 등반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, 올바른 착지에 실패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.

한국소비자원은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▲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할 것, ▲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, ▲완등 후에는 홀드(손잡이)를 잡고 천천히 내려올 것, ▲착지할 때는 양발로 충격을 분산시킨 뒤, 무릎을 굽혀 착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.

물품 등의 사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했거나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'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'에 제보 혹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[위해정보 신고]

- (홈페이지) www.ciss.go.kr에서 '위해정보 신고하기' 클릭
- (핫라인) 국번없이 080-900-3500



위해정보 신고

□ (연도별) 최근 5년간 202건의 안전사고 발생

-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을 통해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는 총 202건이며 2023년부터 급증함.

<연도별 접수 현황>

(단위: 건, %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건수	13	11	19	35	124	202
증감률	-	△15.4	72.7	84.2	254.3	-

□ (연령별) 인공 암벽 등반 안전사고, 20~30대가 전체의 69.4% 차지

- 연령이 확인된 183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, ‘20대’가 50.8%(93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30대’ 18.6%(34건), ‘10세 미만’ 15.3%(28건) 등의 순이었음.
- 10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 시설 내 체험 공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됨. 대부분 연령에서는 팔·다리 부상이 가장 많았으나, 10세 미만의 경우 추락 시 주로 머리 및 얼굴에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됨.

<연령별 접수 현황>

[단위: 건(%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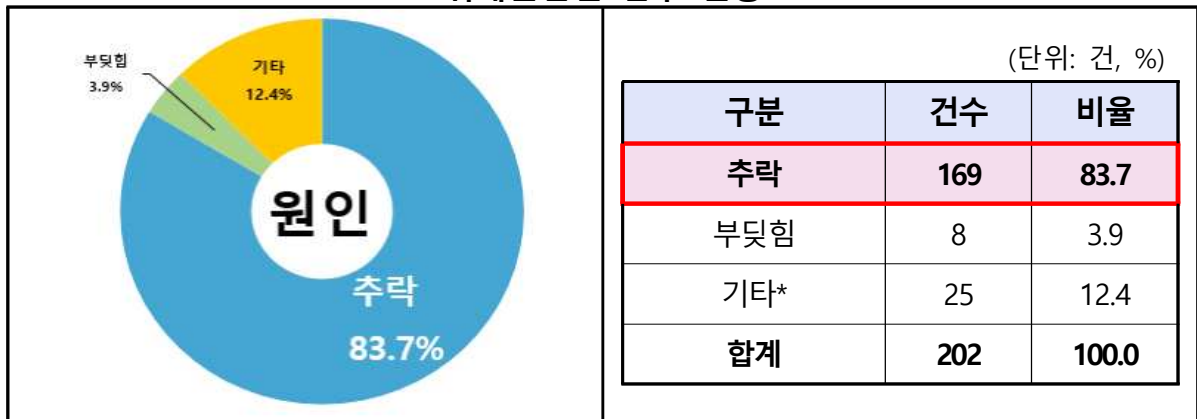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10세 미만	3	4	6	8	7	28 (15.3)
10대	2	2	3	1	8	16 (8.7)
20대	4	3	6	12	68	93 (50.8)
30대	4	1	2	4	23	34 (18.6)
40대	0	1	0	1	4	6 (3.3)
50대	0	0	1	1	4	6 (3.3)
합계	13	11	18	27	114	183 (100.0)

※ 전체 안전사고 202건 중 연령대가 확인되지 않는 19건을 제외한 183건 대상 분석

□ (위해원인별) 10건 중 8건이 '추락' 사고, 착지 미숙 주의

-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, '추락'이 83.7%(169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'부딪힘' 3.9%(8건) 등의 순이었음.
- 안전사고 유형을 세부 분석한 결과, 안전하지 않은 하강 방법과 부적절한 착지 자세로 인한 부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<위해원인별 접수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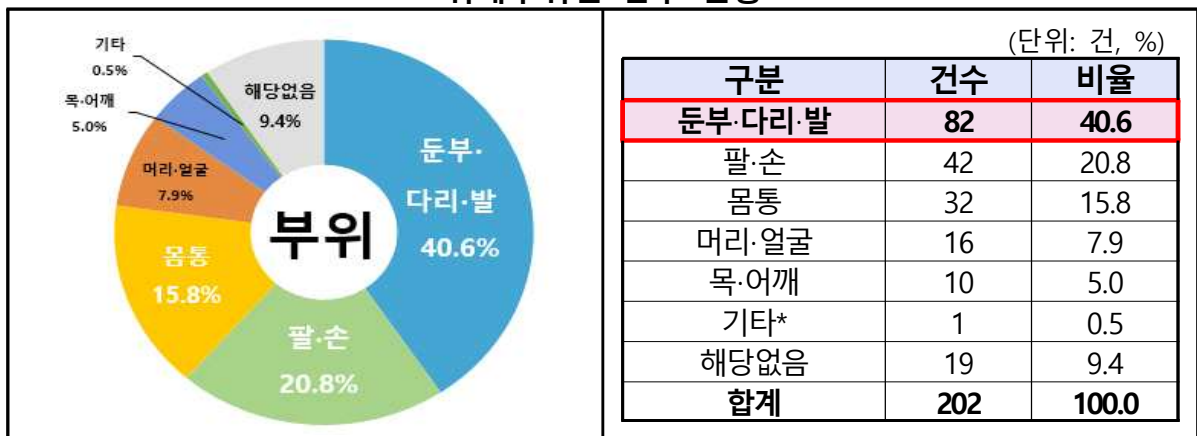


* (기타) 미끄러짐·넘어짐, 파열·파손·꺼여짐 (각 2건), 조작·사용성 불량, 놀림·끼임, 예리함·마감처리 불량, 이물질(가루) (각 1건), 해외정보 등 분류되지 않는 기타 위험·위해 (17건)

□ (위해부위별) '둔부'와 '다리 및 발'에 입는 부상이 가장 많아

- 위해부위를 분석한 결과, '둔부·다리·발'이 40.6%(82건)로 가장 많았으며, '팔·손' 20.8%(42건), '몸통' 15.8%(32건) 등의 순이었음.
- 이는 매트 위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'발목' 등이 손상되거나,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으며 '손목', '팔꿈치'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.

<위해부위별 접수 현황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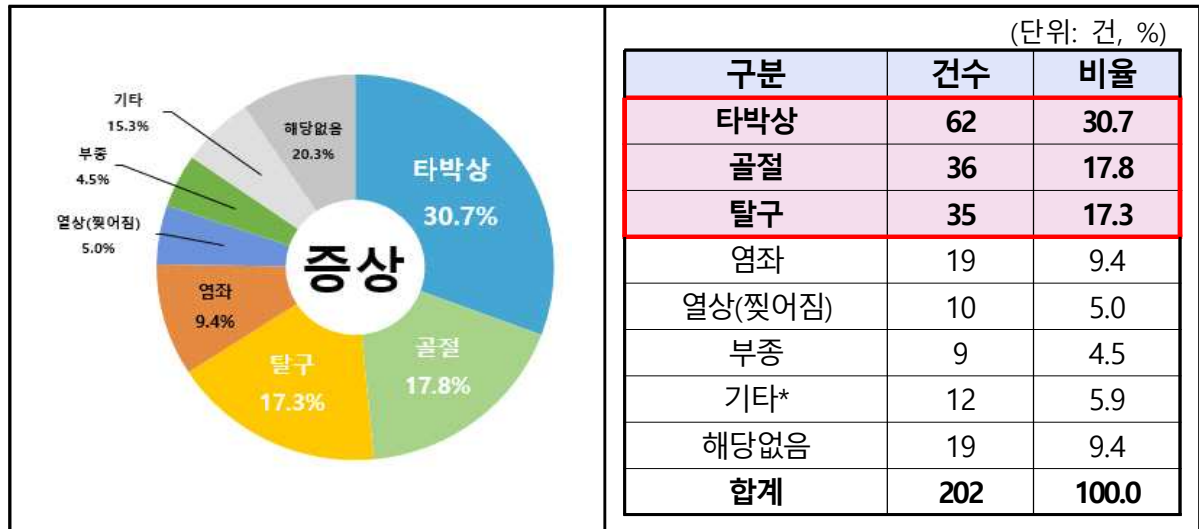


* (기타) 위해부위 확인불가 (1건)

□ (위해증상별) 잘못된 착지, 골절과 탈구 등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

- 위해증상을 분석한 결과, ‘타박상’이 30.7%(62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‘골절’ 17.8%(36건), ‘탈구’ 17.3%(35건) 등의 순이었음.

<위해증상별 접수 현황>



* (기타)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, 뇌진탕, 찰과상 (각 3건), 파쇄(부서짐), 절상(베임), 위해증상 확인불가 (각 1건)

골절 위해사례

- ☐ (24세, 여)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골절 발생
- ☐ (27세, 여)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추락하여 좌측 정강뼈 개방골절 발생

탈구 위해사례

- ☐ (24세, 여)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구조물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 탈구 발생
- ☐ (26세, 여)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팔로 바닥을 짚어 우측 팔꿈치 탈구 발생

타박상 위해사례

- ☐ (28세, 여)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앉은 자세로 착지해 허리 타박상 발생
- ☐ (5세, 남)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1.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얼굴로 떨어져 눈 통증 및 타박상 발생

이용 전 주의사항

- ☐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한다.
- ☐ 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한 후 이용한다.
- ☐ 무리한 도전은 피하고 본인의 실력에 맞는 난이도를 선택한다.
- ☐ 다른 이용자의 이동이나 착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개인 소지품은 매트 바깥에 보관한다.

이용 중 주의사항

- ☐ 완등 후에는 홀드(손잡이)를 잡고 천천히 내려온다.
- ☐ 착지할 때는 양발로 충격을 분산시킨 뒤, 무릎을 굽혀 착지한다.
- ☐ 신체에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.
- ☐ 매트 위에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경우 다른 이용자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.



등반 전
준비운동 하기



소지품은
매트 바깥에 보관하기



완등 후
천천히 내려오기



매트 위에서
휴식하지 않기